전국체신노동조합
창립 1958년 3월 24일
발행 겸 편집인 : 이 원 희
인 쇄 인 : 김 준 배

체신노보

The Postal Labor News

강 령 (1)
우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그리고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과감히 투쟁한다.

제524호 2007년 6월 28일(목) www.kpwu.or.kr 110-110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02)2195-1752~74

제89기 조합간부교육 실시

이론과 실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조직 강화 계기 될 듯

전국체신노동조합은 산하 지부간부들을 대상으로 제89기 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합간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12일부터 15일까지 현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합본부는 조합간부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노동조합에 필요한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조합간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신노동조합의 정책과 간부의 역할, 체신노동조합 운동사, 노동조합의 규정과 노동법 등 노동현장에 필요한 이론을 비롯해 지방가요 및 율동, 근골격계질환 및 예방, 우정사업 추진방향과 전망, 공무원보수제도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여성간부들을 위해 여성간부의 역할, CS교육, 직장내 성희롱대처 등을 주제로한 강의도 펼쳐졌다.

조합본부 이원희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교육은 조합간부들에게 간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향후 바르고 활기찬 조합 활동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아울러 직책과 지역을 넘어 체신노조 간부간의 연대와 친선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2회 위원장기 테니스대회

경북지본 3연패,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조합원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단결력 강화를 위한 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체신노동조합은 지난 6월 2일 현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테니스장에서 이원희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와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 및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내외빈과 선수 및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위원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원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국체신노동조합은 반세기의 유구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된 단결력이 있었기에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조합의 화합과 단결력을 보여주어, 더욱 발전된 체신노조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니스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굄소 갈고 닦은 기량을 최선을 다해 선보이면서도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단결력 강화와 조합원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테니스경기와 번외경기로 줄다리기와 릴레이경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강성심병원에서는 의료진을 파견하여 참가자들에게 혈당과 콜레스테롤, 체지방검사를 비롯한 테이핑 치료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구 분		종합			조별 우승				
		우 승	준우승	장려상	1조	2조	3조	4조	5조
테니스 대회	지방본부	경북	서울	전남	서울	서울	전북	전북	경북
	직할지부	전파	지식	제주	전파	전파	제주	제주	지식
릴레이경주		전남	서울	충청					
줄다리기		부산	충청	전북					

유니우편분과 위원장 조합 래방

UNI 세계 900여개 노동조합 가입된 단체

UNI(국제서부직노조연합) 우편분과 위원장 롤프 뷰트너는 자문위원 볼커제르터와 함께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조합본부를 방문했다.

UN는 체신노조를 비롯하여 전세계 900여개 노동조합 150만명이 가입된 국제노동조합기구이다. 대표단은 대한민국 체신노조가 처해있는 현안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우정사업의 보편적서비스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그리고 전세계 우정노조가 처해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연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을 강조하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유지, 조직강화, 국제연대강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여성위원회, 2007년도 정기총회

여성위 활성화방안 논의 및 자문위원 등 위촉

전국체신노동조합 여성위원회의 여성위원 44명과 조합본부 이원희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본부간부 및 각 지방본부위원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장내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분위를 개선하기 위한 '2007년도 여성위원회 정기총회'가 6월 4~5일 양일간 경기도 파주 롯데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성차별 함께하여 사회적 위상 제고하자'는 슬로건 아래 여성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여성위원회 활성화방안등을 수립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권상희 여성위원장(조합본부 여성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차별의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분위로 바꾸는데 여성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노동자의 의식이나 실태, 정책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노조내 성평등 실천, 모성보호 강화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여성할당제 도입과 여성간부 육성등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지위향상을 위해 체신노조 여성위원회가 더욱 분발하여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1999년 8월에 현 여성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에 공헌한 김미옥 동제프로필 참조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규약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인 김복순 · 최경자 · 진성배 동지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이날 참가자들은 여성조직화의 총력 경주와 여성간부 할당제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하단박스 결의문 참조]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 시간급 3천770원 확정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8만7천930원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3천77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160원)으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비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 · 사 · 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업별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적용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 적용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 면 안 내

2면 : • 2007년도 전국대의원대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
3면 : • 지방본부 및 지부소식
• 제152회 고무인
4면 : • 정보통신부 2007년도 하계수련원 운영안내
• 정년 및 명예퇴직자 명단
• 칭찬합시다

프로필

여성위원회 활성화 및 여성지위향상에 앞장

김미옥 자문위원

1966년 서울중앙우체국에 신규임용되어 1974년 서울중앙우체국 여성부장으로 노조활동과 첫 인연을 맺었다.

외유내강형으로 업무처리만큼은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추진력도 강하고 노조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1999년에는 체신노조 여성위원회를 발족시켜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45년생 ▲서울중앙우체국 여성부장 ▲서울지방본부 여성국장 ▲조합본부 부위원장겸 여성국장 ▲고용평등위원회 평등위원 ▲유니동아시아 여성자문위원 ▲체신노동복지회 이사(현)

제노만평 김용철

당면한 과제해결에 총력을!

결 의 문

우리는 전국 우편, 금융, 부대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조합원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여성조합원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단합된 조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특히 산업사회의 진전과 함께 여성노동의 가치와 참여 기회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 · 정치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여성이 미래 노동운동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성조합원의 조직화와 조합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전국체신노동조합 산하 5천5백여 여성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 뜻 깊은 2007년도 총회를 맞아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모든 여성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 나감은 물론,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여성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여성조직화에 총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여성조합원수에 비례한 여성간부가 조합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할당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1. 우리는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과 평등실현을 적극 추구한다.
1. 우리는 국내외 여성단체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해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적극 개발한다.

2007년 6월 4일

전 국 체 신 노 동 조 합
여성위원회 2007년도 정기총회